



양현종

양현종 vs 소사

“너를 넘어야 팀이 산다”



KIA 양현종과 LG 소사가 다시 만난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에서 시즌 세 번째 대결을 갖는다. 우천취소가 양현종과 소사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앞서 14일 KIA는 임기준을 선발로 예고했지만 이경기가 우천취소가 되면서 15일 등판을 준비했던 양현종으로 선발턴을 넘겼다. LG는 14일 선발 예정이었던

했지만 경기가 3-0,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소사는 첫 등판에서 패전투수가 됐다. 개막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두 선수는 두 번째 시리즈에서 승리를 노린다. 양현종에게는 2승 도전이다. kt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두 번째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됐지만 앞선 NC와의 경기에서는 테임즈에게 솔로포를 맞는 등 6회까지 10개의 피안타로 4실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믿었던 양현종의 불안한 투구 속에 팀은 NC에 싹쓸이 패를 당했다. 첫 등판에서 승음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소사는 이날

KIA-LG, 선발 리턴매치 각각 시즌 2승 도전

에이스 자존심 살리고 팀 연승 잇고...혈투 예고

소사가 그대로 출격을 하면서 양현종과 소사가 마운드에서 만나게 됐다. 시즌 두 번째 만남이다. 두 선수는 지난 3월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선발로 맞대결을 벌였다. 첫 만남에서는 양현종이 판정승을 거뒀다. 6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양현종은 6이닝 5피안타 4사구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넥센에서 LG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친정을 찾은 소사도 6회까지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맞섰지만 7회 고비를 넘지 못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이범호에게 선제 솔로홈런을 맞은 소사는 김원섭에게 중전안타를 내주고 강판됐다. 유원상으로 투수가 교체됐지만 최용규의 3루타로 김원섭이 홈을 밟으면서 소사의 성적은 6이닝 2실점이 됐다. 이날 무시무시한 구위로 선발로서의 충분한 활약을

이터로서의 위력을 보여주며 위기의 LG 마운드를 지탱하고 있다. 삼성전 8이닝 3실점, 한화전 7이닝 2실점의 피칭으로 1승1패를 기록한 소사에게도 2승 도전이다. 팀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꼭 필요한 승이기도 하다. KIA는 5연패 뒤 간신히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다. 불펜 난조에 올랐던 LG도 지난 주말 두산과의 접전에서 워닝시리즈를 가져오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맞았다. 2승과 팀의 반등을 위한 두 투수의 대결이 눈길을 끈다. 한편 명예회복을 노렸던 좌완 임기준은 비에 다시 입맛을 다셨다. 지난 2일 자신의 첫 선발 등판이었던 SK전이 4회 우천취소로 없던 일이 됐던 임기준은 앞선 NC 전에서는 6이닝 11실점을 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소사

광주 여자 소프트볼 중고등부 제패

명진고·봉산중 회장기 전국대회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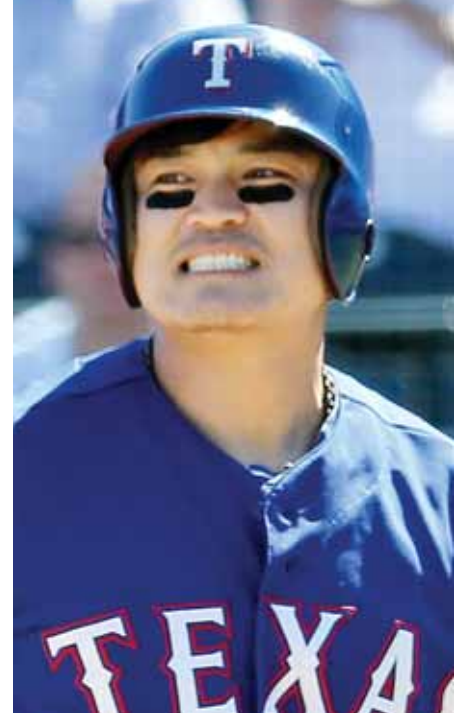


회장기 전국 여자소프트볼대회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한 광주 명진고와 봉산중 선수들이 우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명진고 제공>

광주 여자소프트볼 자매인 명진고와 봉산중이 나란히 전국을 제패했다. 명진고등학교(교장 위홍주) 소프트볼부는 지난 13일 전북 익산시 야구국가대표훈련장에서 열린 '2015 회장기 전국 여자소프트볼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대전디자인고를 꺾고 우승했다. 명진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회장기 5연패와 전국대회 5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또 지난해 회장기부터 시작된 무패 행진을 지속, 30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명진고는 대전디자인고와의 결승에서 5회말 2사 6-6 동점 상황에서 4번 타자 이경민(1년)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 균형을 갈랐다. 명진고는 6회초 1점을 내렸지만, 진주이(2년)의 호투로 8-7 승리를 지켰다. 앞서 명진고는 1회전에서 순천 강남여고를 17-0, 2회전에서 구미여상을 17-2 4회 콜드승으로 가뭄을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서울 신정여상을 맞아 3-1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와 도투상은 유격수 정준이(3년)가 수상했다. 결승타를 때린 이경민은 타격·타점상을, 진주이는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감독

독상은 윤현필 감독에게 돌아갔다. 윤현필 명진고 감독은 "명진고는 전국대회 5회 연속 우승과 30연승 무패행진을 기록 중"이라며 "전국체전 우승 등 올해 전관왕을 목표로 모든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여중부에서는 봉산중이 우승, 지난해 빼앗긴 우승컵을 되찾았다. 봉산중학교(교장 김현숙) 소프트볼부는 이번 대회에서 전 경기 콜드승을 거두는 등 월등한 실력으로 전국 정상을 올렸다. 봉산중은 1회전에서 충북사대부중을 17-10(5회 콜드승)으로, 2회전에서 안화중을 17-2(4회 콜드승)로, 준결승에서 서울 신정여중을 10-0(5회 콜드승)으로, 결승에서 충북대부중을 8-1(5회 콜드승)로 제압, 전 경기 콜드승을 거뒀다. 이로써 봉산중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중별선수권, 회장기 등 전국대회 3연승을 이어갔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포수 윤해령(3년)이, 우수투수상은 김아영(3년)이, 타격·타점상은 구예린(2년)이, 도투상은 이재연(3년)이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신수 등통증 후유증에 삼진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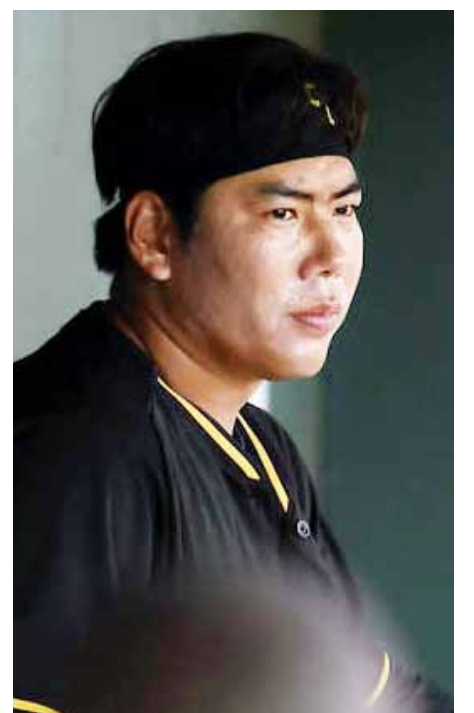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한국인 타자 추신수(33)가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으나 안타를 치지 못했다. 추신수는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석에서 안타 없이 삼진 3개로 물러났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14에서 0.167(18타수 3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3-6으로 역전패해 2연패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등통증으로 지난 10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개막전에서 한 타석만 서고 교체된 추신수는 11일 결정했고 12일에는 대타로 나왔다. 세 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추신수는 통증 여파로 상대 투수의 공에 타격 타

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추신수는 1회 무사 1루에서 에인절스의 우완 선발 투수 맷 슈메이커의 빠른 볼(시속 145km)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3회에는 몸쪽 낮은 체인지업을 피울했지만, 우익수에게 잡혔다. 5회에도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8회에는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우완 사이드암 투수 조 스미스의 빠른 볼에 다시 헛바람을 가르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추신수는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팀이 3-0으로 앞서던 4회 초 2사 1루 수비 때 맷 조이스의 우중간 깊숙한 타구를 잘 따라가 글러브를 뺐었지만, 이를 제대로 견어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한박자 천천히”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대타로 경기에 출전했다. 강정호는 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 개막전 8회말 2사 1루에서 6번 타자 토니 왓슨을 대신해 타석에 섰다. 디트로이트의 세 번째 투수 이안 크롤을 상대한 강정호는 시속 150km짜리 초구를 지켜본 뒤 2구 체인지업에 파울을 쳤다. 강정호는 시속 153km를 찍은 3구에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타구는 디트로이트 2루수 이안 킨슬러 앞으로 향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25에서 0.111(9타수 1안타)로 소폭 떨어졌다. 강정호는 9회초 수비 때 투수 마크 멜란슨

과 교체돼 글러브는 끼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 9일 신시내티 레즈와 개막 2차전에서 8회 초 대타로 투입돼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 섰으나 3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12일 밀워키전에서는 개막 후 5경기 만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처음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이를 연속 선발로 나선 13일에는 밀워키 선발 카일 로시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쳤다. 피츠버그는 선발 투수 게리 콜의 6이닝 1실점 역투와 7회말 터진 페드로 알바레스의 솔로포 및 코리 하트의 대타 투런 홈런에 힘입어 개막 6연승을 달리던 디트로이트를 5-4로 꺾고 시즌 3승(4패)째를 쟁겼다. /연합뉴스



강정호 8회 대타 출전 땅볼